

## [2부]

# 독일어입문 강의 사례 연구

— 수업경험을 중심으로

송 석 희 (서울대)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독일어 기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의 형성에는 다년간의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고 강의 교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독일어교재 편찬위원회가 2004 년도에 발행한 독일어 입문서이고 이를 통한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사례 연구가 본 논문의 기본 성격이다.<sup>1)</sup>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는 독일어 입문의 강의 목표가 소개되고 더불어 강의 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III 장에서는 독일어 입문의 강의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즉, 진도, 난이도, 수강생의 수준 차이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 IV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해 보고, V 장에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VI 장에서 본 논문의 요약과 함께 제시된 해결안의 효용 내지는 효과가 간단히 언급된다.

---

1) 본인은 상기 교재를 이용한 2004년 1학기부터 2007년 1학기 기간 중 3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 II. 강의 목표

본 연구의 대상인 강의는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가 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독일어입문 1 문법중점반이다. 이 강좌의 목표는 기초 독일어습득에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 Dialog의 단어 Wörter와 문법 Grammatik에 중점을 둔 읽기 Lesen, 쓰기 Schreiben, 말하기 Sprechen, 듣기 Hören 능력의 습득에 있다. 이 강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Willkommen! Deutsch für Anfänger”이고,<sup>2)</sup> 총 11과 Lektion로 구성되어 있다. 11개 과의 강의 내용과 진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3)</sup>

### (1) 총 11과의 강의 내용과 진도

1주	알파벳과 발음
2	Lektion 1: Guten Tag! 동사의 인칭변화, 의문문
3	Lektion 2: Meine Eltern kommen nach Deutschland 명사의 성과 격, 부정관사와 소유대명사, 긍정과 부정, 단수/ 복수
4	Lektion 3: Wie geht es dir? 동사의 격지배, 인칭대명사의 형태, 전치사의 격지배
5	Lektion 4: Es regnet nicht mehr 형용사의 비교변화, 화법조동사, 복합동사, 문장어순
6	Lektion 5: Ich bin aus Köln 전치사의 격지배, 전치사의 부사/ 부사구 지배, 의문부사

2) 이 교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독일어교재 편찬위원회가 2004년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독일어 입문서이다.

3) 이 강의계획서는 서울대학교 인터넷 수강편람 독일어입문 1 강좌에 공통적으로 올라 있는 자료이다 (<http://snuhaksa.snu.ac.kr/ssg/Ssgindex.jsp>). 이 강좌는 매주 2회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1회당 1시간 15분으로 정해져 있다.

7	Lektion 6: Was kostet das? 명사의 수와 격, 명령형, 수사과 숫자, 시간과 시각
8	중간고사
9	Lektion 7: Ich interessiere mich für Architektur 재귀대명사, 전치사의 명사구 격지배, 전치사와 대명사의 결합
10	Lektion 8: Wo bist du gewesen? 동사의 과거형태, 과거분사의 형태, 독일어의 시제, 부문장
11	Lektion 9: Der Rhein ist der größte Fluss in Deutschland 형용사의 부가어적 사용, 형용사의 명사화, 부문장과 부정사구
12	Lektion 10: Die Weintrauben werden schon früh im Herbst geerntet 관계대명사와 관계문, 복합접속사, 수동문
13	Lektion 11: Es wäre schön, wenn wir hier eine Fabrik hätten! (1) 접속법
14	Lektion 11: Es wäre schön, wenn wir hier eine Fabrik hätten! (2) 미래시제
15	기말고사
16	

1학기는 보통 16 주를 구성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1 주를 제외하면 14 주 강의가 이루어지고 중간고사 이전 첫 주부터 7 주까지는 독일어 알파벳과 발음부터 시작하여 단순 문장으로 구성된 대화 내용을 가지고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의 문법적 특성, 즉 각 주요 품사의 형태론적 특성을 수강생들은 배우게 된다. 그 후 기말고사까지는 현재 시제 이외의 완료, 미래 시제나 접속사, 부정사 구문, 관계 문장, 수동 문장, 접속법 등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이 등장하게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강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각 단원 Lektion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각 단원 Lektion의 구성

1. a. Kurzdialog—b. Variationen
2. a. Dialog—b. Fragen zum Dialog
3. Strukturen
4. Übungen: a. Partnerübungen—b. Kontrollübungen
5. Landeskunde

개별 단원은 위 (2)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의 Kurzdialog와 Variationen을 보면 이것은 짧은 핵심 대화를 먼저 Kurzdialog에서 보여주고 이에 대한 변화형을 Variationen에서 제시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2의 Dialog와 Fragen zum Dialog에서는 위의 짧은 핵심 대화 가 삽입된 긴 대화를 제공하고 이 긴 대화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부분이다. 3의 Strukturen에서는 긴 대화에 필요한 문법이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 4의 Übungen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연습이 되는데 먼저 Partnerübungen에서는 핵심대화나 긴 대화의 연습이 되고 두 번째 Kontrollübungen에서는 긴 대화의 요약 Zusammenfassung을 연습하도록 짜여 있다. 마지막 부분 5 Landeskunde에는 긴 대화 내용에 관한 문화적 설명이 우리말로 소개되어 있다.

이제 (2)와 같이 구성된 각 단원의 강의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3) 강의 방법

전반	2a / b+3 → 1 → 4
후반	3 → 2 → 1 → 4
담당선생님	2a, 1b, 3
수강생	2b, 1a, 4a / b

우선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2a Dialog—b Fragen zum Dialog와 3 Strukturen을 동시에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1a Kurzdialog—b Variationen을 설명하고

4a Partnerübungen-b Kontrollübungen을 진행시킨다. 중간 시험이후 기말까지는 앞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sup>4)</sup> 먼저 3 Strukturen을 자세히 다루고 나서 2a Dialog-b Fragen zum Dialog를 하고 그 다음 1a Kurzdiallog-b Variationen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a Partnerübungen-b Kontrollübungen을 다룬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의 담당자인 본인이 2a Dialog를 전달하고 수강생들에게 2b Fragen zum Dialog를 하도록 하여 수강생들의 수업 참여를 적극 권한다. 같은 방식으로 1b Variationen과 3 Strukturen은 본인이 강의하고 1b Variationen과 연습 부분으로서 대화 연습 4a Partnerübungen과 대화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인 4b Kontrollübungen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이때 강의 언어는 본인이 담당하는 부분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본인이 독일어로 질문하고 수강생들이 독일어로 답하도록 하여 독일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기초를 습득하게끔 수업을 이끌어 간다.

### III. 강의 문제

앞의 II 장에서는 독일어 입문을 강의함에 있어서 강의 목표에 따르는 내용 및 방법이 다루어 졌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강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강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인이 경험상 발견한 문제점들이다.

---

4) 이렇게 강의 전반과 후반에 강의 방식을 약간 변형하는 이유는 단지 수강생들이 지루해함을 탈피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화의 구조들이 강의 전반에 비하여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대화에 나오는 문법을 다루는 3 Strukturen을 우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독일어입문1 문법중점반 강좌에 부합하기도 한다.

## (4) 강의 목표 달성에 생기는 문제점들

1. 진도
2. 난이도
3. 수강생 수준 차이

첫째 문제는 진도이다. 학사행정상 한 학기 총 16 주의 강의 시간 중 중간 시험과 기말시험 각각 1 주를 제외하면 실제 14 주가 남는다. 매주 한 단원을 강의 하면 첫째 주를 철차와 받음으로 시작하여 10과 까지 11 주가 할당되고 11과는 두 주를 할당하여 11과 까지 13 주가 소요되어 위의 II 장 (1)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결국 1 주의 여유가 생긴다. (강의계획서 (1)에 보면 16 주째가 비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도는 2 난이도 문제 즉 교재의 각 단원이 지니고 있는 난이도 등급이 반영이 되지 않은 진도 이고 더 나가서 3 수강생 수준 차이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수업 진도라고 여겨진다. 특히 세 번째 문제는 수강생들이 (넓게 분류해서)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수강생 수준인 초보 단계 Anfängerstufe (A)와 이미 독일어를 배운 수강생 수준인 Nichtanfängerstufe (N)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어서 강의 진행에 두드러지는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문제가 서로 결부되므로 각 단원에 단순히 동일하게 한 주 배당은 문제로 지적된다.

다음은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강의 문제 - 난이도(Strukturen)

난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서 난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의 문법적 구조이다.<sup>5)</sup>

5) 대화의 난이도 측정기준에는 첫째: 단어 (수, 의미의 난해도), 둘째: 문법, 셋째: 대화 내용의 깊이 및 길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총 11 단원들 간에 셋째와 넷째 항목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첫째 항목 단어 수에도 단원 1을 제외하고는 각 열 개의 과가 일

문법적으로 고찰할 때 문장의 핵심은 동사이고 (Duden 1998, S. 89)<sup>6)</sup> 더 나아가서 언어학적 시각으로) 볼 때 문장 구조의 복잡성은 동사와 접속사의 출현에 달려 있다. 여러 개의 동사나 접속사가 등장할 수 록 문장의 구조는 복잡하게 된다. 다음은 한 문장내의 동사와 접속사의 출현빈도수에 따라서 본인이 측정한 각과의 난이도 등급표이다 (동사와 접속사는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 (5) 난이도(Strukturen)

과	내 용	등급
1	<b>동사의 현재</b> 인칭변화, 의문문	1
2	명사의 성과 격(1격, 4격), <b>haben 동사의 현재</b> 인칭변화, 부정관사와 소유대명사(1격, 4격), 긍정과 부정, 기수	1
3	명사의 3격, 동사의 격지배(4격지배, 3격지배), 인칭대명사의 형태(1격, 4격, 3격), <b>동사의 현재</b> 인칭변화(불규칙), 전치사의 격지배(in)	1
4	형용사의 비교변화, 화법조 <b>동사의 현재</b> 인칭변화, 불규칙 <b>동사 werden의 현재</b> 인칭형, 복합 <b>동사</b> , 문장어순 (단순문에서 화법조동사의 위치)	1.5
5	전치사의 명사구 격지배(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전치사의 부사지배, 의문부사 <b>wohin, woher</b>	0.5

관성을 보인다.

- 6) Duden 문법책의 동사 편 S. 89의 각주 2에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즉 전통문법에서도 동사가 가장 주요한 품사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dere, weniger angemessene Bezeichnungen (vor allem in älteren Schulgrammatiken) sind *Zeit-, Tätigkeits- oder Tu(n)wort*. – Wörtlich meint *Verb* (lat. *verbum*) einfach „das Wort“, ein Hinweis darauf, dass die antik-klassische Grammatik das Verb als die wichtigste Wortart angesehen hat.”
- 7) 언어학자 Chomsky (1981, 1986, 1995)는 문장의 핵을 구조적으로 접속사 COMP (Complimentizer), 굴절소 INFL (Inflection)와 동사 V (Verb)로 보고 이 핵들이 투영되어 문장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때 굴절소 INFL 이란 시제 (Tense), 일치 (Agreement) 및 화법 (Modal)자질로 구성되는 기능범주를 말하고 접속사 범주 COMP는 시제가 있는 문장에서는 실제 접속사가 등장하지만 시제가 없는 문장은 부정사 구문으로 실현되는 기능범주를 말한다.

과	내 용	등급
6	명사의 수(단수, 복수형태)와 격(1격-4격), <b>명령형</b> , 100 이상의 숫자, 시간과 시각, 유로화, 비인칭대명사 es	1
7	재귀 <b>동사</b> , 전치사의 명사구 격지배(3·4격지배전치사), 전치사와 (의문·지시)대명사의 결합, 문장형식(부문장 <b>접속사</b> -weil, wenn)	1.5
8	<b>동사</b> 의 과거인칭변화, 과거분사의 형태, 독일어의 시제: <b>과거</b> , <b>현재완료</b> , 부문장 <b>접속사</b> (dass-, ob-, als-)	2
9	형용사의 부가어적 사용: 어미변화, 형용사의 명사화, 의문대명사 welcher, was für (ein), <b>부문장과 부정사구</b>	2
10	관계대명사와 <b>관계문</b> , 복합 <b>접속사</b> , <b>수동문</b>	2
11	<b>접속법</b> (간접화법, 가정법), <b>미래</b> 시제	2

숫자가 높을수록 고난도를 표시하는 위의 난이도 등급 차이를 보면 단원 1, 2, 3 과 6은 공통적으로 동사의 단순 시제 즉 현재 시제나 현재 시제에서 더 단순화 된 시제가 표현되는 동사의 명령형을 다루고 있어서 각각 1 등급을 할당하였다. 단원 4 와 7은 앞의 1 등급 단원들과는 달리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하는 과 (4과에서 화법조동사와 본동사, 복합동사가 등장)이거나 동사뿐만 아니라 접속사가 등장 (7과에서 처음으로 부문장 접속사가 등장)하므로 1.5 등급을 부여하였다. 단원 8, 9, 10, 11 에는 공히 2 등급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동사의 형태에 드러나는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시제가 등장하고 각종 부문장 접속사가 이끄는 부문장, 부정사 구문, 관계 문장, 수동 문장, 접속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Strukturen 부분에 동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원 5 에는 상대적으로 0.5 등급을 할당하였다. 결국 대화의 문법적 구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난이도의 등급 차이를 배제한 강의 진도는 문제가 있음을 표 (5)가 보여 주고 있다.



## 2. 강의 문제 - 수강생 수준 차이

독일어입문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제가 수강생 간의 독일어 실력의 차이이다. 순전한 초보로서 본 강좌에서 처음으로 독일어를 배우는 수강생이 사실상 강좌의 수강 대상이지만 수업 과정에서는 대다수 수강생이 이미 독일어를 다른 곳에서 배웠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강생의 수준 차이가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sup>8)</sup>

## (6) 강의 초기

총 명	A	N
23	7 (30.4%)	16 (69.6%)

## (7) 강의 말기

총 명	A	N
18	4 (22.2%)	14 (77.8%)

위의 표 (6)과 (7)이 보여 주는 바대로 20~30 %가 순전히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고 70~80 % 정도가 독일어를 이미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운 학생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강생 수준 차이가 수업 진도뿐만 아니라 초보 A와 비초보 N 각각에게도 수업이 불만족스럽게 진행되어 질수 있다는 점이다.

8) 본 통계자료는 2007년도 1학기 본인이 담당한 강좌 독일어입문 1 006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강의 첫날 참석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강의 종강 한 주 전에 다시 한 번 당일 참석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 IV. 문제해결의 시도

이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본인이 강의 과정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우선 진도와 교재의 난이도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 (8) 진도와 난이도

1 주	철자와 발음
2	Lektion 1
3	2
4	3
5	4
6	5
7	6
8 주	중간시험
9	7
10(2) / 11(1)	Lektion 8
11(1) / 12(2)	Lektion 9
13(2) / 14(1)	Lektion 10
14(1) / 15(2)	Lektion 11
16 주	기말시험

매주 한 단원씩 9 주째 까지 진행되는 것은 본래의 II 장 (1) 강의계획서와 동일하나 앞서 난이도 등급표 (5)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원 8부터 11까지에는 기존의 한 주 내지는 두 주 할당(단원 11에만 두 주가 할당되어 있었음)에서 탈피하여 공통적으로 한 주 반을 할당하였다. 즉, 매

한 주에 2번씩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1 회(표 (8)의 11 주와 14 주에 숫자 1로 굵게 표시됨)의 강의가 단원 8부터 11까지에만 첨가되는 방식이다.

다음은 수강생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 (9) 수강생의 수준 차이 해결

1. 반복설명
2. 질문유도
3. 면담시간

위의 세 가지 방법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강의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점을 반복하여 설명해 준다. 수업 시간 내에 질문하지 못한 내용은 면담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 수강생 개인 간의 수준 차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상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sup>9)</sup>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 (10) 진도에 차질이 생길 경우

- [1]. 2a/b Dialog+1b Variationen+3 Strukturen→4b Kontrollübungen
- [2]. 2b Fragen zum Dialog 생략
- [3]. 1b Variationen 생략

첫째, 2 장 (2) 각 단원의 내용 중 2a/b Dialog를 하면서 1b Variationen과 3 Strukturen을 함께 설명한다. 그 다음 4b로 해당과를 마무리한다. 즉, 1a Kurzdialog와 4a Partnerübungen는 Dialog의 반복이므로 생략한다. 만일 이 방법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즉, 2b Fragen zum Dialog를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한 대화 내용의 확인 연습이기

9) 학사행정상 14주 강의이지만 실제 국경일이나 축제일, 자율학습일, 개교기념일등이 있어서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때문이다. 그래도 진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1b Variationen도 생략하는데 이는 강의에서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의 전달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해결책 (8), (9), (10)로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교재의 난이도에 따른 시간의 할당 증가 방식 (8), 즉 난이도가 높은 8과에서 11과까지에 기존 2회 강의에 1회 더 배당하는 본인의 해결방식은 수강생의 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단지 교재의 과별 난이도 수준 차이만이 반영된 해결책이다. 따라서 원래 강의 목적에 다다른데 걸림돌이 여전히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바로 다음의 2007 1학기 독일어입문 1 강의 평가 통계자료이다.<sup>10)</sup>

(11) 강의평가 (진도): 수강생의 진도평가(2007 1학기)

진도	응답수강생수(13명)	%
매우 빠르다	1	53.8
빠르다	6	
보통이다	6	46.2

본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절반 이상 (53.8 %)의 수강생이 진도가 빠르다고 대답을 하여 결국 대다수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했고 만족스러운 독일어 능력 습득에는 거리가 있어서 위의 해결책이 사실상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독일어입문 1 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급함을 강의자나 수강자 입장에서 절감한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제안한다.

10) 이 자료는 강의 종강 한 주전에 당일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도에 관한 견해만을 미리 조사한 것이다. 총 13명이 참석하여 답변하였고 종강 후에 강의평가를 열람하며 보면 몇몇 학생이 진도가 빠름을 지적하고 있다.

## V. 합리적 현실적 해결안

이 장 제목에서 ‘합리적’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어입문 1 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해법임을 뜻하고 ‘현실적’이 의도하는 점은 하향 평준화되는 독일어 수강자들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고 또한 독일어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는 교육적 현실을 감안하는 실질적인 제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적의 해결안은 진도에 교재의 난이도와 수강생의 수준이 반영된 해결안이 될 것이다. 이른바 다음과 같은 해결안이다.

### (12) 교재 분할방식

학기	1	2
Lektion	1-7	8-11

1과부터 7과 까지 한 학기를 강의하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8과부터 11과까지는 다음 학기에 개설하는 교재 분할 방식 강의이다.<sup>11)</sup> 실제로 프랑스어 입문 강좌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을 다음의 통계 자료가 제시한다.<sup>12)</sup>

- 
- 11) 교재를 분할하는 방식은 위의 제안 외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독일어입문 1 교재를 난이도에 따라서 분할하고 2학기에 해당하는 분량에 한 단위 즉 마지막 12 과를 첨가하여 이 마지막 단위에서는 독일어입문 1과 연계되는 강좌 독일어입문 2를 소개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12) 이 통계자료의 출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가 제공한 인문대개설 외국어 과목 수강생수(2005.1~2007.1)이다.

## (13) 실행효과사례: 분할 방식의 프랑스어입문 1 현황

년도. 학기	정원(강좌수)	수강생수	%
2005. 1	275(11)	243	88.4
2005. 2	275(11)	169	61.5
2006. 1	275(11)	198	72.0
2006. 2	225(9)	188	83.6
2007. 1	250(10)	237	94.8

위의 자료 (13)에 따르면 2005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비록 강좌수가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꾸준히 수강생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면에 독일어입문 1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4) 현행 방식의 독일어입문 1 현황

년도. 학기	정원(강좌수)	수강생수	%
2005. 1	255(11)	224	87.8
2005. 2	270(12)	132	48.9
2006. 1	245(11)	200	81.6
2006. 2	220(10)	166	75.5
2007. 1	245(11)	213	86.9

현행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입문 1의 경우 2005년 2학기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외 년도 학기 수강생 비율을 보면 증감이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프랑스어입문에 비하여 수강률이 저조함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위 학기동안 즉, 2년 반인 5학기의 총 정원에 총 수강생수를 독일어입문과 프랑스어입문 간에 비교한 자료이다.

## (15) 현행방식의 독일어와 분할방식의 프랑스어 수강률 비교

방식	현행(독일어입문 1)	분할(프랑스어입문 1)
수강생	935명 / 정원 1235명 55강좌	1035명 / 정원 1300명 52강좌
%	75.7%	79.6%

독일어입문 1은 강좌수가 프랑스어입문 1에 비교하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수는 적어서 독일어입문 1이 약 76%를, 프랑스어입문 1이 약 80%의 수강률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독일어입문 1 강의에 교재 분할 방식을 채택함이 진도에 교재 난이도, 수강생 수준차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으로서 독일어입문의 강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 VI. 맺는 말

본 논문은 독일어에 입문하는 대학생들에게 독일어의 기초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본인이 담당하 강좌 “독일어입문 1 (문법중점반)” 강의 사례를 가지고 다루었다. 본 독일어 입문의 강의 목표는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의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의 습득에 있다. 강의 내용은 독일어 기초 전반이 다루어지고 강의 방법은 문법과 어휘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말로써 자세히 이루어지고 실제 대화의 연습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독일어 말하기, 듣기 능력의 습득을 위하여 독일어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어 입문의 강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즉 진도, 교재의 난이도, 수강생의 수준 차이가 강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재 각 단원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차등 할당하거나 반복적 설명, 질문 유도등의 전통적 고전적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나, 여전히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는 불만족이 드러나고 있

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안으로서 현행 교재의 분할 방식을 제안한다. 즉, 이러한 제안의 개념적 배경에는 매 단원 마다 새로운 독일어 지식이 제공되므로 이 새 정보를 수강생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전달하는 데에 강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수강생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정신이다.

본 사례 연구는 앞으로의 독일어 수업에 발전적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이를테면 한 학기에 11 단원을 강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기에 교재의 절반만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학생들이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만큼 늘어나므로 독일어 말하기 능력 습득내지는 향상에 현격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진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개별 단원 당 시간 할당이 현저히 늘어나고 이 시간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므로 동기부여에 따른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Pisa Lecture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 \_\_\_\_\_: (1986a). *Barriers*. Cambridge, Mass: The MIT.
- \_\_\_\_\_: (1986b).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The MIT.
- Dudenredaktion (1998).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Dudenverlag.
- \_\_\_\_\_: (2000). *Die deutsche Rechtschreibung*. Mannheim: Dudenverlag.
- \_\_\_\_\_: (2003).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Mannheim: Dudenverlag.
- Eisenberg, P. (2000).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Weimar: Metzler.
- Helbig, G. & J. Buscha (2001).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Berlin, München: Langenscheidt.
- 강미란 (2007). <독일어 입문 1> 회화중점반 수업사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7. 6. 14. 집담회 발표 자료.
- 구명철 (2007). 교양독일어 과목 운영체계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7. 6. 14. 집담회 발표 자료.
- 독일어입문 1 강의평가 (2007). 교과목 번호 010. 030, 강좌번호 00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2007 학년도 1학기 개설 기초 교양 과목.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독일어교재 편찬위원회 (2007). *Willkommen! Deutsch für Anfänger*.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인문대개설\_외국어과목\_수강생수 (2005.1~2007.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소장 자료.
- 서울대학교 2007 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 (2007). 강좌의\_개요\_및\_Lab안내.  
<http://snuhaksa.snu.ac.kr/ssg/Ssgindex.jsp>

<Zusammenfassung>

## Eine Untersuchung des Deutschkurses für Anfänger

- basierend auf Unterrichtserfahrungen -

Seok-Hee Song (Seoul National Univ.)

Dieser Aufsatz behandelt eine Analyse der Probleme im deutschen Anfängerkurs und einen Vorschlag für die Lösung der Probleme. Der Unterricht nennt sich Einführung I in das grammatikfokussierte Deutsch, was auf den Erwerb-Fähigkeit der TeilnehmerInnen zielt. Die Probleme, die sich während des Unterrichts zeigen, sind der Unterrichtszeitplan, der Schwierigkeitsgrad der Lektionen des Textes und der Niveauunterschied der TeilnehmerInnen. 14 Wochen lang sollen die 11 Lektionen des Textes unterrichtet werden. Aber diese Lektionen haben unterschiedliche Schwierigkeiten und der Unterricht soll außerdem die verschiedenen Levels von Anfängern und Nichtanfängern respektieren. Das Unterrichten, das pro Woche eine Lektion ohne Berücksichtigung des Schwierigkeitsgrades der Lektionen und des unterschiedlichen Leistungsstandes der TeilnehmerInnen behandelt, ist deshalb problematisch. Die drei Faktoren funktionieren also als Barriere, die verhindern, das Ziel des Unterrichtes zu erreichen. Darum schlage ich eine vernünftige und reale Lösung der Probleme vor, d.h. die Teilung des Textes dem Schwierigkeitsgrad folgend und das Unterrichten jeder Hälfte in jedem Kurs. Diese angepasste Unterrichtsmethode wird den Anfängern mehr Zeit und Gelegenheit zum Sprechen als früher geben. Hoffentlich nehmen die Anfänger an dem Unterricht dann aktiver teil und dadurch erwarte ich eine Qualitätserhöhung des Unterrichtes. Schließlich wird dieser Vorschlag, der auf Unterrichtserfahrungen basiert, helfen, das Unterrichtsziel zu erlangen.

주제어: 독일어입문, 진도, 난이도, 수강생 수준 차이, 맞춤 교육, 교재 분할

Schlüsselbegriffe: Einführung in Deutsch, Unterrichtszeitplan, Schwierigkeitsgrad, Niveauunterschied, Angepasster Unterricht, Textteilung

필자 E-mail: [song@snu.ac.kr](mailto:song@snu.ac.kr)

논문투고일: 2007. 9. 30, 논문심사일: 2007. 10. 15, 게재확정일: 2007. 10. 30.